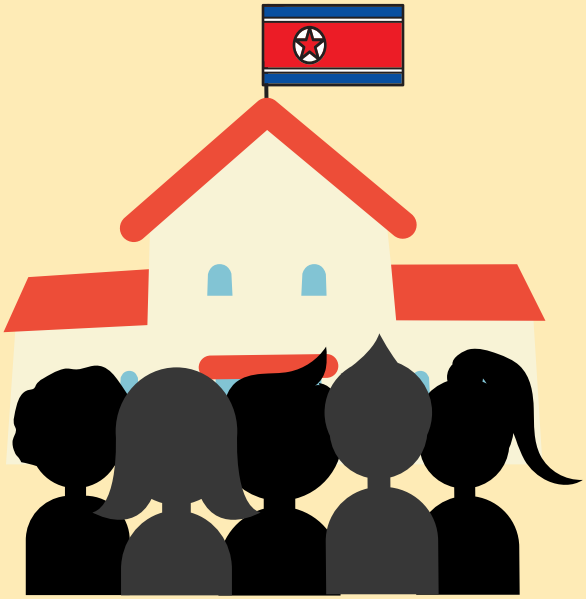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북한의 교육과 '개인'-

황예지 지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황예지

Yeji Hwang

2001 년 남한의 수도 서울에서 태어났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공부 중이다.

이 책은 저자의 첫 번째 작품이다.

지은이 황예지

펴낸이 황예지

펴낸곳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표지 디자인 황예지

첫번째 찍은날 2021. 12. 08

주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 동

홈페이지 www.anthropology.or.kr

ISBN 978-89-876543- 2-1 03120

이 책은 저작권 법에 의해 보호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북한 교육과 ‘개인’-

2020-16951 황예지 지음

서 울 대 학 교

차례

1 장 들어가면서_ 05
-왜 교육이고, 왜 개인인가

2 장 북한의 영재 교육_ 11

3 장 '재간둥이들'의 '꿈'_ 17
- 북한 수재들 개인의 목표의식

4 장 '재간둥이들'의 '겨루기'_26
- 북한 교육에서 개인적인 경쟁이 가지는 의미

5 장 우리는 북한의 개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_34

참고문헌_ 38

초록

외부에서 북한 사회의 집단주의를 '전체를 위한 하나(개인)'라는 구호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집단을 위해 개인을 착취하고 각자의 특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달리, 북한 사회에서 개인이 아주 배제된 것만은 아니다.

이 책은 개별의 인간들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사회화하는 장으로서의 학교와, 그렇기에 비교적 개인이 잘 드러나는 교육 분야에 집중하여 북한 내의 '개인'을 살펴본다. 교육 기관을 주된 배경으로 포함하고 있는 영화 <우리 집 이야기> 와 텔레비죤극 <꿈을 속삭이는 소리>, <소년탐구자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터뷰와 강연 등의 자료에서 드러난 북한 교육에서의 '개인'을 '아이들의 꿈 담론', '경쟁', '수재 교육'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찾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집단주의 북한 사회에서 '개인'이 가지는 의미를 유추하고 남한 사회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의 '개인'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1 장 들어가면서

‘북한’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2018 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따르면(최순미·이우영 2018) 북한을 ‘적국’, ‘야만국’, ‘종속국’, ‘독재국’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는 비율이 과반을 훨씬 넘겼다. 북한을 접하는 유일한 통로인 언론에서 보도하는 북한의 모습이 주로 부정적으로 서술된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과연 언론에서 보도되는 북한의 모습이 전부일까? 북한의 인류학 시간에 내가 봤던 북한의 모습은 기존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달랐다. 북한의 인민들이 질서 있게 열을 맞추어 진행하는 아리랑 축제, 열병식과

같이, 언론에서는 주로 개인을 규율함으로써 집단을 유지하는 집단주의 국가 북한의 모습을 강조하여 보도하는데, 내가 본 북한의 개인은 집단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수동적인 개인이 아니었다. 우리가 북한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려고 하다 보니 그들의 일면만 보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나는 집단주의 국가 북한에서의 '개인'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 사회의 집단주의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집단을 위해 개인을 착취하고 각자의 특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달리, 북한 사회에서 개인이 아주 배제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과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해당되는 북한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북한의 개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개인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화'가 일어나는 분야가 개인에 집중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개인의 의미는 사회화 방식에 따라 문화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개별의 인간들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사회화하는 장으로서의 학교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집중하려고 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교육에 집중하여 '개인'을 본다는 것의 의미이다. 이는 교육의 내용보다는 교육의 장에서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자신에 대해 이해해가며, 타인과, 집단과의 관계를 학습해간다는 점'에 집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적 개인이 잘 드러나는 교육 분야에 집중하여 북한 내의 '개인'을 살펴본다. 교육 기관을 주된 배경으로 포함하고 있는 영화 <우리 집 이야기> 와 텔레비죤극 <꿈을 속삭이는 소리>, <소년탐구자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터뷰와 강연 등의 자료에서 드러난 북한 교육에서의 '개인'을 '아이들의 꿈 담론', '경쟁', '수재 교육'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찾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집단주의 북한 사회에서 '개인'이 가지는 의미를 유추하고 남한 사회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의 '개인'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북한이 집단주의 국가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집단주의 특성을 배제하고는 북한에서의 개인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식 집단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북한의 집단주의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북한의 집단주의에 대한 기존 시각은 그들의 집단주의가 사실상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 개인은 없고 개인이 종속된 집단만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재헌(2020)은 북한의 집단주의를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적으로만 조망하는 데서 이러한 일면적 인식이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집단주의를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통치실천과 연결 지어 바라본다면 북한의 집단과 개인은 연속선상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사회주의적 산업주의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뚜렷한 목적의식성 — 전체화 — 을 지닌 규율화된 '인민'을 생산한다는 것— 개별화— 은 북한의 가장 원형적인 통치실천의 원리였으며, 집단주의는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도덕화된 규범이자 의례의 이

> 데올로기적 장치 였다. (중략) 집단주의라는 것은 산업주의라는 물질주의의 집단적 추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별화하면서 전체화하는 동원 양식의 도덕화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한재헌 2020: 166-167)

위에서 인용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집단주의는 물질 생산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별화-전체화를 거치는 통치실천의 도덕화된 형태였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북한 집단주의의 핵심이었다. 북한의 개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 혹은 집단에 의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몸으로 개별화된다는 점에서 집단과 연결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그 틀을 지키는 선에서 개인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있기는 존재이기도 하다.

집단과 개인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집단주의에 대한 북한 외부에서 지배적인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북한의 집단과 개인 관계의 연속선상에서 북한의 개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장부터는 이러한 북한의 맥락 하에 실시되고 있는 영재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북한의 영재들로 본 북한 사회에서의 '개인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2 장 북한의 영재 교육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교육 부분에서 기존의 11 년제 의무교육에서 1 년을 더한 12 년제 의무교육으로의 학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2000 년대 이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 원칙에 따라 교육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의 핵심은 '인재 발굴과 양성'에 있다. 김정은 시대로 접어든 후에는 특히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탐구를 통한 지식 발견 등의 실력이 기반이 되는 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이를 교육 체계, 특히 수재 교육에 반영하였다. 수재 교육은 북한에서 영재 교육을 일컫는 말이라는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 (앞으로의 전개되는 내용에 자주 등장할 예정이다.)

북한 당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교육 기관 중 특히 영재 교육기관을 항상 소개할 정도로 이들은 영재 교육기관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 중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방문객에게도 거의 항상 소개되는 기관은 <사진 1> 에서 보이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다. 이는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영화관 등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큰 규모의 교육 기관이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일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 특정 분야에 재능을 가진 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영재로 선발되고 관리와 지도를 받게 된다.

<사진 1> 만경대 학생궁전의 외관

김정일 시대, 그리고 김정은 시대까지 이어지며 중시되는 북한의 영재 교육은 어떤 것일까? 북한의 수재 교육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12 년제 의무교육제 내에서 실시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별도의 수재교육 체계가 운영된다. 영재 교육은 크게 예체능 분야, 자연과학 분야, 외국어 분야로 나뉜다. 가장 먼저 영재를 기르기 시작한 분야는 예체능으로, 조기 재능 발굴이 중요하다고 여겨져 유치원 때부터 이들을 따로 교육한다. 자연과학분야와 외국어 분야의 영재들은 중고등학교 연령대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영재 교육이 중요해졌다. 북한의 목표인 '강성대국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방안전과 경제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 개발을 달성하는 수단을 현재 북한에서 정보화 교육과 과학기술 교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 분야의 영재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에서 영재 교육은 각 분야별 수재가 진학하게 되는 별도의 학교가 있다. 북한 예체능 분야 영재교육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평양국제축구학교 등 특화된 학교에서 수재를 양성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조기교육을 받은 창광 유치원, 경상 유치원

출신의 신동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자연 과학 영재 교육 기관은 제 1 중학교가 대표적이다. 북한은 특정 학교를 본보기 삼아 이 학교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재생산하기도 하는데, 평양 제 1 고등중학교가 대표적인 본보기 학교였다. 현재는 도별 약 26 개로 축소하였지만, 1999 년에 시, 군, 구역마다 설치하여 200 여개의 제 1 중학교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기에 제 1 중학교가 중요해진 것이다. 외국어 교육 분야는 한국의 외국어 고등학교와 같은 외국어 학원이 존재한다. 외국어 학원에 진학한 많은 수의 학생들은 부모가 무역업, 외교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이러한 소수 인원만 선발하는 특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와 달리 별도의 시험을 치른다. 이러한 특수 학교는 6 년제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 년)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일반 학교와 공통적이다. 특수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명문 대학 진학이 수월해진다. 이러한 학교 출신 학생들은 주로 그 지방 거점 대학에 진학하여 지방의 엘리트로 자라나게 된다. 또, 평양의 특수학교에 진학하기는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러한 학교가 엘리트 코스의 과정의 일부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평양 특수 학교

출신 학생들은 주로 나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엘리트로 성장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수재 양성을 위해 이토록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재 교육은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들이 곧 '국가의 얼굴이자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인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평등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에서의 평등과 남한에서의 평등개념이 다른데, 이 지점에서 북한과 남한의 영재교육의 차이가 나타난다. 남한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기에 이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진정한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북한에서 평등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함은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에서 수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가정 배경이나 출신 성분까지 고려하여 선별된 이들이다. 하지만 개인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수재라면, 가정 배경이 좋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키워준다.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 장학금을 주기도 한다.

수재 교육의 현실은 어떨까? 북한의 수재 교육은 사교육과 떨어뜨려 놓고 설명하기 어려웠다. 북한 사회도 한국 사회처럼 부모의 교육열이 높다. 2019 년 탈북민을 중심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서 북한에 거주할 때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32.7%였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9) 예전에는 악기 위주의 가정교육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입시와 연관되고 부모님의 좋은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의식과 이어져 수학, 과학 과목의 사교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5 년에는 예체능 관련 사교육의 비율이 가장 컸다면(김경민 외 2016) 2019 년에는 교과 과목 관련 사교육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북한에서 개인이 대학 진학을 위해 내신 성적 관리차원에서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3 장 ‘재간둥이들’의 ‘꿈’

북한의 텔레비죤극 <꿈을 속삭이는 소리>와 영화 <우리 집 이야기>는 모두 ‘아이들 각자의 꿈’에 집중한다. 북한에서 이 두 작품을 포함한 국가가 만든 작품은 그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반영한다. 그렇기에 기존의 북한에 대한 인식처럼 북한 사회가 개인은 무시한 채 집단을 우선시한다면 개인의 꿈을 주제로 한 작품이 국가 주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진 3>은 집 마당에 모여서 자신의 꿈을 나누는 리정아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뛰어난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은정이, 음악 교사가 꿈인 은향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은철이, 이들 모두 희망찬 표정과 목소리로 자신의 꿈을 나눈다. 이 점에서

북한에서 아이들이 꿈을 가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3>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리정아와 남매

은향: *"언니 꿈은 뭐더라?"*

리정아: *"내 꿈은 은정이랑 은향이, 그리고 은철이, 너희 모두의 꿈을 지켜주는거야."*

이 영화 전반에서 어머니를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된 처녀 어머니 리정아의 대사에서 보이듯이,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일조하는 것이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정아는 고아인 은정이와 남매를 위해 집안일을 해주며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려고 했으나, 은정이에게 거부당한다. 이후 단순히 엄마를 대신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이들 남매의 '꿈'을 지지해주면서 진정한 어머니로 거듭난다. 또한 위와 같은 목표를 가진 리정아의 지지를 통해 결과적으로 은정은 수학올림픽에서 1 등을 하고 은철은 축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아이들의 주체성을 갖춘 인재로 기르고 국가와 주변인들이 이들 개개인의 꿈을 지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4> 대룡의 서예 실력을 감상하는 교양원들과 일혁

은희 선생: *"우리 교양원들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아이들의 재능이 영원히 낙엽 속에 묻히면 어떡하겠어요." (중략)*

원장 선생: *"은희 선생처럼 아이들 동심에 푹 잠겨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왜 웃고 우는지, 한 두 아이만이 아닌 아이들 동심에 푹 잠기더라면 그 속에서 뭔가 들리는 소리가 있을 거에요."*

***설경 선생**: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원장 선생**: "아이들이 자기 **꿈**을 속삭인단 말이에요."*

텔레비죤극 <꿈을 속삭이는 소리>는 아이들 개개인의 역량에 집중하고 아이들의 '꿈'에 귀를 기울이는 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룡, 일혁, 현정이 영화에서 재능을 가진 아이들, 즉 '재간둥이'로 등장한다. 재간둥이들이 바로 자신의 꿈을 찾은 것은 아니다. 대룡 같은 경우에는 영화 초반에 꽹과리 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이후 서예 공부는 힘들어하지 않고 스스로 해보고 싶어하는 대룡의 모습과 대조된다. 다른 재간둥이도 대룡과 같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인의 관심사, 재능에 대하여 교양원에게 신호를 보낸다.

대룡의 예시처럼 수재들이 자신의 재능과 동일시되는 자신의 '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유치원은 좋을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유치원 교양원들 중 이 영화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는 은희 선생은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들이 '꿈을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설경 선생: *(중략)"그렇다고 별로 다른 꿈도 있어보이지 않지."*

대룡 어머님: *"꿈이요? 아휴 참. 아이 때야 하루 밤에도 12 가지 꿈을 꾼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걸 믿어요? 뭐니뭐니 해도 부모 열성이 아이 앞길을 개척해준다지 않아요?"*

설경 선생: *"대룡이 어머니,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강요에 의해서 원하지 않은 가야금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난 붓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유치원 선생님이 내 손에 쥐어줬던 붓을 꺾어버렸어요. 가야금에 점점 흥미가 없어지고 철이 들면서 부모들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 유치원 선생님도 저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또한 이 작품에서는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 아이들 자신의 꿈이 꺾이는 것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은희 선생의 첫 제자인 설경

선생은 어렸을 때 자신의 꿈인 서예를 포기하고 어머니의 뜻대로 가야금을 배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후 자신의 꿈을 좇아 서예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위에서 보이는 대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설경 선생은 대룡의 부모님을 찾아가 자신의 일화를 전해주며 부모의 뜻대로 아이의 꿈을 저버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북한에 대한 기존의 인식으로는 북한 인민들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개인의 꿈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북한 사회에서 개인이 배제된 존재가 아님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아이들 개개인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남한의 학생들처럼 순전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들의 동기는 <꿈을 속삭이는 소리>보다는 영화 <우리 집 이야기>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다음은 이를 잘 보여주는 <우리 집 이야기>의 한 장면의 대사다.

은철: *(마당에 있는 인공기를 가리키며) "나 저 깃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되어서 무조건 날릴래."*

리정아: *"그래 은철인 희망대로 축구 선수가 되고 은향인 음악 선생이 되고 은정인 여성 과학자가 되어서 우리나라 깃발 더욱 빛내자."*

은철과 리정아의 대사처럼 북한 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성공을 곧 국가적인 성공으로 결부시키고 개인이 이를 목표로 삼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적인 성공이 그들이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남한 사회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인데, 남한에서는 대체로 개인적인 성공 자체가 주된 동기인 경우가 많으며, 국가적인 성공이 일차적 목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공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다.

이러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자라나는 북한의 재간둥이, 즉 어린 수재들은 자라나면서 국가 내에서는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상위층이 되는 방향으로 '꿈'을 설정한다. 실제로 많은 비율의 수재들이 국가적 엘리트로 자라나게 된다. 수재 중학교,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여 자신들의 현실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사교육을 받기도 한다. 사교육이 북한에서 불법이기는 하지만 엘리트들 중 많은 비율이 사교육(가정교육)을 이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를

모두 규제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훗날 나라를 위해 일할 뛰어난 일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중 극히 일부는 해외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는데, 김일성대학과 같은 국내 최고 대학에 진학하고 이후 유학을 갔다 오면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개인은 자비를 들여서 유학을 가기도 한다.

북한을 보는 외부 시각과 실제 북한 사회와의 이러한 괴리는 소련 체제가 붕괴되기 전에 외부에서 소련 사람을 바라본 것과 내부에서의 삶이 달랐다는 점과 비슷했다. 소련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의 사람들에 주목했던 알렉세이 유르착의 책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리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2019)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체제가 무너지기 직전의 시점에 소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에서는 정권에 세뇌된 사람이라는 시선 혹은 그들이 연극하고 체한 것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곳의 사람들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지켜야할 것으로 여겨지고 대대로 내려오던 '수행적 담론'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안에서의 그들만의 의미를 새롭게 찾았다. 즉,

소련 사람들은 사회주의 이상을 지향하면서도 국가가 제시한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개인은 크게 봤을 때, 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따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내었다는 점에서 붕괴 직전 소련의 개인과 비슷하다. 면밀히 말하자면, 북한의 개인은 북한의 집단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꿈과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소련 사람이 연기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개인이 집단의 강제에 의해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4 장 '재간둥이들'의 '겨루기'

영화 <소년탐구자들>에서는 북한의 다른 예술작품에 비해 경쟁의 양상이 비교적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실제로 영화에서 북한에서 경쟁을 일컫는 단어인 '겨루기'가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학생들 간의 경쟁을 찾아볼 수 있다. 처음에 등장하는 경쟁의 양상은 순전히 개인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은별과 목란, 그리고 청송과 순남이 각각 한 팀이 되어 바위절벽까지의 거리를 메아리 음파로 누가 먼저 계산하는지를 두고 겨루기를 한다.

(은별이 과학적 환상도 지식에 기초한다는 말에 청송이 실천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이후의 대화)

순남: *"우리는 말로 하지 않아."*

은별: *"말로 안한다. 그럼 우리 한 번 겨뤄보자!"*

(중략)

은별: *"저 바위 절벽이 보이지?(중략) 저기까지 거리를 누가 먼저 계산하는가 경기하자. 동무들이 자신 있어하는 메어리 음파로."*

청송&순남: *"해보자."*

<사진 4> 여학생과 남학생이 조를 이루어 겨루기를 하는 모습

위의 상황은 순전히 학생들의 개인적인 경쟁심으로 인해 발생한 경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어떤 수재의 개인의 기량이 뛰어난지

자신들 스스로 검증해보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기존의 북한의 개인에 대한 시각을 고수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집단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면,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경쟁하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이들은 과학환상대회 참가 준비로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들은 잃어버린 전쟁 영웅들의 목소리와 이름을 찾기 위해 서로 겨루게 된다. 이는 개인적 경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개인 간의 경쟁이 국가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경쟁과는 차이를 보인다.

여선생: *"자기의 이름도 남기지 않고 청춘을 바친 무명 영웅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란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혜와 힘과 용맹을 다 바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달라는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은별: *"이야! 그 당부를 꼭 잊지 않겠습니다."*

교장 선생: *"청송 학생, 은별 학생, 우리 고향 땅을 위해 자기의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이 무명 영웅들의 이름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소."*

청송: *"정말 무명 영웅들의 이름을 들을 수는 없을까."*

여선생: *"교장 선생님 청송학생은 이번 환상 경연 때 메아리 음파로 무명 전사들의 목소리를 찾겠다고 하고, 은별 학생도 그들의 이름을 찾겠다고 합니다."*

결국 메아리 음파로 청송이 무명 영웅의 목소리와 이름을 일부 찾아내게 되고, 엉뚱한 '환상'으로만 여겨졌던 청송의 호기심과 탐구심이 인정을 받게 된다. 학생의 발명이기는 하지만 청송학생이 찾아낸 음성파의 성과는 과학계의 지지를 받았고, 과학 연구자의 도움으로 그들은 무명 전사들의 잃어버린 이름을 모두 찾아낼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텔레비전 과학 환상 경연에 이러한 발명품을 가지고 청송, 순남, 은별, 목란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여기서 우승을 한 후에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음향학 강좌에서 그의 발명품의 원리에 대해 교수가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 영화는 수재 간의 경쟁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을 통해 수재의 재능과 탐구심이 국가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경쟁을 개인주의적인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국가 인재 양성 등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유치원 안에서 빨간별 경쟁이 이루어진다. <꿈을 속삭이는 소리>의 교실 풍경에서도 뒷벽에 각 개인마다 다른 개수의 빨간 별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지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품행에 따라서도 도장을 주지만 북한은 주로 아이들의 실력과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빨간 별 스티커를 붙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은 빨간 별 경쟁은 개인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아이들의 두뇌회전과 재능 발굴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북한 유치원의 빨간 별 경쟁은 수재의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쟁이다. 유치원생들은 끝말잇기 하면서 숫자 계산, 청음 하면서 숫자 계산, 빠른 속도로 숫자 계산, 바둑, 큐브 맞추기 등을 서로 겨루면서 빨간 별을 쟁취한다.

<사진 5> 북한 유치원의 빨간 별 경쟁

북한의 재간둥이들은 자라나면서 앞서 언급한 것 외에 다양한 경쟁을 거친다. 대표적으로 대회와 입시 경쟁을 들 수 있다. 텔레비죤극 <꿈을 속삭이는 소리>와 <소년탐구자들>, 그리고 영화 <우리 집 이야기>에는 각각 전국 서예 소묘 축전, 과학환상대회, 수학 올림픽이 등장한다. 세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는 경연대회가 많이 열린다. 남한도 그렇지만 재간둥이들이 모두 자신의 재능을 살려 엘리트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연 대회는 재능 있는

아이들 간의 경쟁을 시켜서 살아남은 일부 학생들만 선별해내어 '수재'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재간둥이가 훗날 국가 엘리트로 거듭나기 위하여 보통 겪게 되는 과정에는 남한에도 존재하는 입시 경쟁이 포함된다. 특수 중학교 입시와 대학 입시가 있는데 이는 시험 형식이 대부분이다. 북한에서도 대학 입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전국에서 입시 기간에 동시에 전자 시험을 치고 이 경쟁에서 상위권 점수를 얻은 학생만이 원하는 대학,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물론 특수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별된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지역에 따라(특히 평양과 타 지역) 교육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시에 전자 시험을 보고 이후 얻은 점수가 대학 입시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입시에 있어서도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경쟁은 남한의 경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수재도 개인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경쟁하고 상위권에 머물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수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공과 국가의 성공을 연결지으면서 자신을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수재의 역량을 더 끌어올리고 국가적 인재로 수재를 기르기 위해 국가는 경쟁을 이용한다. 이 지점에서 북한과 남한의 경쟁을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5 장 우리는 북한의 개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북한에서 개인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영재 교육 하에서 '개인'을 북한 당국이 제공하거나 북한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시각자료와 북한이 내집단이었던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통해 살펴보았다. 교과 교육과 사회화 그리고 규범을 가르치며 사회에 맞는 몸을 만들어가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 중 특히 이 글에서 집중하는 영재 교육은 수재들의 꿈 담론에서 더 나아가 일부 수재들이 이후에 겪게 되는 엘리트 교육으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겨루기', 즉 경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잘 드러나는 분야다. 이러한 특징은 표면적으로 모두 개인을

우선시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개인'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북한의 개인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 교육에서 개인, 구체적으로 말해 이 글에서 주로 다루는 북한의 수재들은 자신의 능력을 훗날 국가적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내면화하고 있다. 자신의 성공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성공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개인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교육, 유학 등의 부가적이면서 개인적인 투자를 하여 개인의 역량을 기르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 사회가 지향하는 큰 틀 안에서는 북한의 개인, 이 글에서 북한의 수재는 자신의 미래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경쟁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를 동일시하고 있었으며, 국가의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은 북한의 영재 교육에서 개인이 중시되는 실상을 다룸으로써, 기존의 시각처럼 북한의 개인을 집단주의 국가의 일부로만 여기고, 억압당하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일면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시각으로는 북한에서 앞서 언급한 개인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등과 같이, 북한의 개인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개인은 '국가 혹은 집단'과의 연관성 속에서 바라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다른 국가의 개인 또한 출신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북한의 경우 개인과 국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집단과 개인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인과 국가 혹은 집단을 연결시켜 놓고 보면, 결국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는 북한의 개인에게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수재들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전체인 국가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고 이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점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의 앞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동시에 수재들은 국가라는 전체로부터 그들의 재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지지를 받기도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수재들이 사회의 성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인이기에 국가는 이들을 국가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성공을

동일시하고 이를 위해 경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동시에 규율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집단주의 국가 북한에서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는 유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북한 자료

[저널]

인민교육, 1962-1965.

[연설문]

김정일, 1997,
"평양제 1 고등중학교를본보기학교로잘꾸릴데대하여: 교육부문책임일군협의회에서한연설," 1984 년 4 월 28 일.

[영화]

평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16,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

[텔레비죤극]

평양: 텔레비죤극창작단, 2012, 텔레비죤극 <꿈을 속삭이는 소리> 제 1,2 부.

평양: 텔레비죤극창작사 제 3 창작단, 2013, 텔레비죤극 <소년탐구자들>.

국내자료

[단행본]

김지수(한구교육개발원 편저), 2019,『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 진천 : 한국교육개발원.

유르착, 알렉세이(김수환 역), 2019,『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전미영 ・북한연구학회, 2015,『(김정은시대의) 문화: 전환기 북한의 문화현실과 문화기획』, 파주: 한울아카데미.

주성하, 2018,『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주성하 기자가 전하는 진짜 북한 이야기』, 서울 : 북돋움.

[논문]

김경민·정은미·장용석·박명규, 2016, "북한사회변동 2015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북한사회변동』2015(0), 1-201.

김석향·김경미, 2017,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전반적 12 년제 의무교육 분석,”『통일정책연구』26(1): 105-134.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사회변동 2019,"『북한사회변동』2019(0):1-152.

안지영, 2021, “제한된 꿈에 갇힌 희망의 아이콘: 김정은 시기 북한 영화와 TV 드라마 속 아동·청소년 형상,” 『통일인문학』 86: 241-291.

최순미·이우영, 2019,“한국인의 북한이미지,” 『현대북한연구』 22.2 :87-121.

한재헌, 2020, “개별화-전체화의 혼종양식으로서 북한의 ‘집단주의’ — ‘북한 사회의 개인화’ 연구를 위한 서설,” 『개념과 소통』 25: 147-181.

현인애, 2018, “[북한 교육과 청소년] 당·국가 주도의 인재 양성과 교육의 세계화,” 『Institute of North Korea Studies』 Vol. 599: 98-105.

인터넷 자료

[유튜브 영상 자료]

-뉴스+ 통일부 자료-

남북의 창, 2021. 3. 15., “북한을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은 유치원부터다? 북한 유치원생들의 치열한 교육기 [남북의 짤],” https://www.youtube.com/watch?v=EetLnysnDmU&t=80s, (2021.10.30 최종접속).

남북의 창, 2021.6. 2., “북한판 스카이캐슬? 최고 명문 창광 유치원 교육에 치열한 경쟁 [남북의짤],”

https://www.youtube.com/watch?v=2Aa0hl8ZbH0
, (2021.10.30 최종접속).

남북통합문화센터, 2021. 7. 15., "제 4 회 평화통일 열린강좌(북한 영재교육): 북한 영재교육과 영재교육기관! 북한의 조기 영재교육과 교육열," https://www.youtube.com/watch?v=up6YmARk8oM (2021.10.30 최종접속).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19. 10.19., "(2030 과정) 북한 영재교육은 어떻게 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Z6oYrJQgnaI&t=86s, (2021.10.31 최종검색).

KBS News(남북의 창), 2020.4.11., "[클로즈업 북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북한 영재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kw-UjMCVk00, (2021.10.31 최종검색).

-탈북민 경험 자료-

난세일기, 2020.1.24., "북한의 '엘리트', 그들은 누구인가?," https://youtu.be/ywHW5Vp5Hxo, (2021.12.04 최종검색)

난세일기, 2020.9.24., "북한의 단 0.1% 엘리트 해외유학생들, 그들은 누구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XpZM8-

e6btU&t=10s,
(2021.10.30. 최종검색).

채널 A, 2019.4.7., “북한 상위 1% 엘리트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 말한다! SKY 캐슬 뺨치는 북한의 살벌한(?) 사교육! I 이제 만나러 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evxkFBmvA0
(2021.10.30. 최종검색).

-외국 다큐멘터리 자료-

SAO Documentary, 2020.6.5., “[Korean World 3] Episode 29: North Korea's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Class," https://www.youtube.com/watch?v=qapIuAcP8YI,
(2021.10.30 최종검색).

SAO Documentary, 2020.6.6., “[Korean World 3] 30 ep: How about North Korean exams, the "Internet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https://www.youtube.com/watch?v=f3L7km4UMPc,
(2021.10.30 최종검색).

북한에서 개인은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일 뿐일까?

북한의 '개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열병식, 집단체조의 한 부분으로의 개인이 생각날 수도 있고, 북한에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의 영향으로 '개인'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과 국가는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북한의 개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개인을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북한 사회 내에서 개인이 잘 드러나는 사회 분야는 개인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교육'이다. 북한 당국과 북한을 배경으로 한 자료, 북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 북한의 학교과 개인에 집중해보자!

값 12,900원

ISBN 978-89-876543-2-1 03120